

##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I. 하우어워스, '사회윤리'에 도전하다

1. 기독교의 사회윤리?
2. 교회됨의 사회윤리!
3. 사회윤리 아젠더로서의 '교회됨'

### III. 나오는 말

---

\* 이 글은 2010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What's the task of church in these times? Christian social ethics of Reinhold Niebuhr and public theology of M. Stackhouse told that the social concern for social policy and are the answers,

On the contrary, S. Hauerwas proposes 'ecclesial ethics' which emphasize 'the task of being church of church,' Hauerwas says his ethical ideas as these: (1) the recovery of the importance of the virtues for the understanding Christian life, (2) an emphasis on narrative for the intelligibility of an action description, (3) a correlative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church as a community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the people of virtue, (4) criticism of the accommodation of the church to liberal political arrangement, and (5)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nonviolence as a hallmark of the Christian way of being in the world,

Now, the focuses of this paper are as these: (1) Hauerwas' argument is not sectarian withdrawal but a new agenda for Christian social ethics which must to be added to Niebuhrian perspective in Korean context of Christian social ethics. (2) the genuine problem which must to discuss is how to train for moral mature according to Hauerwas' narrative morality in church. Anyway, the most important task is let church be church in Korea,

**Key words** : Church, Narrative, Ecclesial Ethics, Ethic of Virtue, Christian Social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시민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소통인가? 정체성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하는가? 혹은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의 본이 되어야 하는가? 쉽지 않은 질문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보기에, 이 질문들은 변형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질문들을 굳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도식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오해는 아닐까? 각각의 강조점의 차이이거나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것일 뿐, 결국 기독교사회윤리 그 자체는 하나가 아닐까? ‘하나됨’을 강조하려는 뜻은 아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사회윤리의 자기정체성과 실천적 과제를 고민하는 두 관점들을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기독교사회윤리의 성숙 내지는 새로운 아젠더의 추구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독교사회윤리 개념 그 자체에 도전장을 내민 하우어워스(S. Hauerwas)의 관점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사회윤리의 정체성과 책무에 관한 성찰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II. 하우어워스, ‘사회윤리’에 도전하다

### 1. ‘기독교’의 사회윤리?

라인홀드 니버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은 그 자체로 탁월하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아가페적 양보와 타협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집단과 집단의 갈등에는 집단이기주의(collective egoism)의 작용으로 인해

정의의 실현을 통한 아가페에의 근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의 관점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을 가장 잘 보여준다. '사회구조', '정치체제' 및 '시스템'의 문제를 윤리의 중요한 관심사로 편입시킨 것 또한 그의 공로이다. 윤리에 있어서의 '정치적 방법', '권력정책' 역시 니버의 탁견에 속한다.<sup>1)</sup> 이른바 '기독교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로 대변되는 그의 관점은 기독교윤리에서만 아니라, 도덕철학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sup>2)</sup>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니부어'라는 표기법으로 등장한 그의 사상은 사회윤리학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준다.

굳이 계보라는 용어까지 쓸 필요는 없다 해도, 니버의 관점은 현대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스택하우스(M. Stackhouse)로 이어지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형태로 재론되기도 한다.<sup>3)</sup> 특히, 마틴 마티(M. Marty)가 이름 붙였다고 알려진 공공신학이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책무를 사회참여와 정책대안의 제시 등을 통한 공공성의 모색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넘어서 세계(세상) 혹은 사회를 향한 적극적 행보를 대변해준다.

물론, 교회와 사회의 관계설정에 다양한 이론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영미계열의 신학이든 혹은 대륙의 신학이든 간에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고 교회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며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1)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사회윤리학』(나남, 1993)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아마도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은 1978년에 출판되어 지금은 희귀본이 되어버린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아닐까 싶다.

2) 예를 들어, 황경식은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문학과 지성사, 1985)에서 현대윤리학에 나타난 사회윤리적 관심을 종합하면서 고티에(D. D. Gauthier), 노웰 스미스(Nowell-Smith), 드워킨(D. Dworkin) 등을 소개하고, 기독교 신학자로 니버(R. Niebuhr), 브룬너(E. Brunner), 본회퍼(D. Bonhoeffer) 등을 언급한다.

3) 이 부분은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생각이 대부분일 듯싶다. 사회를 교회와 이질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든 혹은 사회 역시 하나님의 통치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이든 간에, 마찬가지로이다. 교회는 고백신앙에 묶여있어서는 안 되며,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적 통찰을 제시하거나 혹은 기독교적 정책을 제안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사회를 변혁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버의 관점은 무척이나 사회지향적이다. 어쩌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니버의 사회윤리는 미국사회의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과 참여 및 정책의 제시 등 기독교적 가치관의 사회적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기억될 수 있겠다. 가령, 니버는 라우센부쉬(W. Rauschenbusch)의 사회복음주의를 강화시켜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사회윤리를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사회와 정치시스템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sup>4)</sup> 누군가 말했듯이, 그의 윤리는 말 그대로, 미국적 신학(American Theology)일지 모른다. 미국 및 국제관계라는 정치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선하게 만들고자 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담아 ‘기독교현실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니버의 탁견은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사회윤리에 여전히 유효한 틀로 남아있다.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로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 더구나 오늘의 시민사회에서 기독교가 지녀야 할 사회윤리의 비전과 실천해야 할 윤리적 관심사들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니버를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사회윤리는 여전히 적실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4)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45면

퇴색하지 않는 윤리적 전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쨌든, 니버가 요구하는 ‘사회윤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현실사회에 방향을 제시해준 참여적 성격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니버의 윤리는 교회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사회문제와 현실에 관심을 집중한 셈이다.

필자가 주목하려는 것은 니버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다. ‘기독교’의 사회윤리 혹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시하는 사회윤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이다. 시민적 성숙이 무르익어가는 한국사회에서, ‘너나 잘 하세요’ 식으로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연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시하는 사회윤리가 시민사회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소통’을 위한 대안모색에 힘쓰는 기독교지식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사회윤리를 향한 한국적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시민사회를 향해 교회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 되려는 노력이 절실했던 ‘한국적 현실’과 그 원인으로서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에 있다. ‘기독교’의 사회윤리를 말하는 것 못지않게, 기독교적 현실참여에 걸맞는 윤리적 성숙이 교회 안에 요구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 2. ‘교회됨’의 사회윤리!

한국적 맥락에 꼭 들어맞는다는 뜻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도 아니겠지만,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은 무척이나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회의 교회됨’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소통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주는 의미가 크

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는 기독교사회윤리의 개념 혹은 문제의식에 던진 그의 도전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사회윤리의 본질에 대한 관습적 생각에 던진 그의 도전장은 어찌 보면, 사회윤리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싶다.<sup>5)</sup>

필자가 보기에, 이 글의 논제에 맞추어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교회됨의 사회윤리’라 부를 수 있을 듯싶다. 니버의 관점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정의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사들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를 선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면,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방향전환의 요구라 할 수 있겠다.

### 1) 사회윤리, 교회에 주목하라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기독교사회윤리는 교회의 교회됨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이제까지 세속정치에 참여하려던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교회가 지닌 더 심오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하게 했다.<sup>6)</sup>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를 선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교회의 교회됨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사회윤리는 사회정의를 위한 전략개발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분명한 방향전환의 요구라 할 수 있겠다.<sup>7)</sup>

많은 경우에, ‘사회윤리’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정책과 전략 혹은 그 정책들의 바탕이 되는 사회정의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교회가 사회질서에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채택한 사회전략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sup>8)</sup>

5) 같은 책, 29면

6) 같은 책, 150면

7) 같은 책, 18면, 182면

8) 같은 책, 169면

그에 따르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사회분석이라는 지난한 작업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철학적 과학적 도구들이 사회분석 작업에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도구들이 곧 교회의 사회윤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이다.<sup>9)</sup>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사회시스템이 주는 자유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 것은 아니며 사회정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누리는 정의와 같은 것도 아니다. 우리의 책무는 국가의 교회화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국가일 뿐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sup>10)</sup>

그렇다면, 하우어워스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이며 방향전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의 대답은 ‘교회’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교회됨’에 있다.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the first task of the church is to be itself)이다.<sup>11)</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가에 협조하는 기관이 되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이유를 가진다.<sup>12)</sup>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정부의 합법성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개선의 전략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으뜸가는 책무가 세상을 좀 더 선하고 좀 더 정의로운

---

9) 같은 책, 214면

10) 같은 책, 215면

11)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0

12) S. Hauerwas & W.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 있는 사람, 2008), 55면



곳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이 왜 그들의 정치적 책무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일차적인 사회적 책무는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해석 및 식별기술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현실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sup>13)</sup>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교회에 별도의 사회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교회가 곧 사회윤리이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회 전략을 말하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회전략이다.<sup>14)</sup> ‘교회됨’이야말로 기독교사회윤리의 핵심과제라는 주장인 듯싶다. 그에 따르면, 교회의 책무는 사회문제들에 정책을 제시하고 협력자가 되어 현실정치의 윤활유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무척이나 매력 있고 시대적 당위를 말해주는 듯한 이 대목에서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 개념이다. 그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을 그리 탐탁하지 않게 여긴다. 이 구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본래 거스타프슨(J. Gustafson)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분법을 몰랐을 리 없다.<sup>15)</sup> 하우어워스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또는 공적 도덕과 사적 도덕의 구분법을 의문시한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구분은 단지 이론상의 개념일 뿐이다.<sup>16)</sup> 더구나, 개인윤리와 사회윤

13)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52면

14) S. Hauerwas & W.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북 있는 사람, 2008), 61면

15)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구분법을 무척이나 의식하고 있다. 출판 30년에 가까운 〈교회됨〉(*Community of Character*) 한국어판 서문에서는 모든 윤리가 사회윤리라는 점에서 굳이 ‘사회윤리’를 구획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우어워스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현대적 의미의 덕의 윤리 자체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리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지니는 의의와 지위, 자유와 평등의 대립, 사랑과 정의의 상호관계 등은 사회윤리의 결정적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sup>17)</sup>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론적 배경인 공동체주의와의 연관성을 암시해주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동체라는 용어는 소그룹 즉 긴밀히 결합된 집단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동체를 개별 인격체들의 소그룹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sup>18)</sup>

말하자면, 하우어워스는 사회윤리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혹은 사회윤리 무용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들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정의를 비롯한 윤리적 이슈들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른바 개인윤리의 관점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 의도는 이러한 이슈들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이슈들이 사회윤리의 근본문제로 상정되는 와중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어떤 사회정의론도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확

16)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拙譯, 『교회됨』(북코리아, 2010), 234면.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연관 지어 본다면, 덕의 윤리를 개인윤리에 속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17) 같은 책, 28~29면

18) 같은 책, 127면

신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대다수의 기독교사회윤리학자들은 교회의 존재의의를 말할 때 사회정의 및 사회변혁이라는 ‘현실적’ 이슈와는 별 상관없이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듯싶다. 내가 보기에, 교회야말로 신실한 정치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으뜸가는 사회적 책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만한 덕스러운 사람을 육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이론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회의 책무가 아니다. 교회의 책무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국가이라고 부르는 정치체제에 독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이다.<sup>19)</sup>

이처럼, 하우어워스가 제도와 사회적 이슈들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윤리를 개인윤리적인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성급함을 보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관점의 전환 혹은 중심의 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혹은 직접적인 사회정책의 제시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향한 관심으로의 관점전환이 그 핵심에 있는 셈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도전장은 사회윤리 자체의 거부가 아니라, 사회윤리의 내용 혹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시스템이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현대기독교사회윤리학의 지배적인 관점에 도전한 것이라 하겠다.<sup>20)</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가 사회정의를 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너무도 자주 복음의 이름으로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 전제들을 아무 성찰도 없이 강화시켜 주곤 한다. 오히려, 너무도 익숙하게 젖어있는 이러한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교회는 전혀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19) 같은 책, 18면

20) 같은 책, 20면

21) 같은 책, 33면

말하자면, 사회윤리의 중심축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가 굳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하지 않으려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사회윤리의 개념에 바로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 필자가 보기에,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특히 미국 기독교에 대한 자기반성의 촉구가 담겨 있는 듯싶다. 예를 들어, 마틴 마티나 니버가 말하는 사회윤리를 추종하는 것은 결국 보수주의이건 자유주의이건 간에 일종의 콘스탄틴적 타협에 속한다고 보는 셈이다.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과제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해지는 것이라고 한다.<sup>22)</sup> 사회윤리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 점에서, 하우어워스가 교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사회정의나 여타의 선한 정책들을 위한 잠재적 대행기관쯤으로 생각해 왔다. 신앙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비신앙인들 역시 교회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간주하곤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진정한 이유는 기독교의 확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교회가 이 진리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점에서 찾아야만 한다.<sup>23)</sup> 바로 여기에 하우어워스의 요점이 있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사회윤리가 ‘그리스도인 됨’(being Christian)을 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기독교사회윤리가 사회적 전략의 근거를 찾으려는 목적에서 말

22)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3

23)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4면

씀에 호소하려 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따지고 보면, 사회적 전략이라는 것은 말씀보다는 다른 이론들을 근거로 삼고 있거나 혹은 다른 근거들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sup>24)</sup>

따라서 독특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회적 의의를 교회 자체의 고유한 통전성을 따라 재천명하는 것이야말로 하우어워스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이상의 다른 무엇도 아니라는 점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교회됨, 사회윤리가 되다

모든 윤리적 응답은 교회에서 시작된다.<sup>25)</sup> 이것이 하우어워스 윤리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이점에서 그의 윤리는 교회의존적(church-dependent)이라 할 수 있으며,<sup>26)</sup> 그의 윤리에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는 별명이 붙는 이유 또한 여기 있다. 강조하여 표현하자면, 하우어워스에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소명(calling for the church to be the church)이다.<sup>27)</sup> 그리고 교회가 현실정치의 도전에 항상 응답해야할 방식은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sup>28)</sup>

말하자면, 교회가 강조해야 할 가장 창조적인 사회전략은 다름 아닌

24) 같은 책, 83면

25) S. Hauerwas & W.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북 있는 사람, 2008), 123면

26) 같은 책, 106면

27)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2

28)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71면

교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됨’이다. 여기에는 세상이 사회적 강제력이나 통치행위를 통해서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sup>29)</sup> 이러한 교회윤리의 제안을 위해 하우어워스가 주목한 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내러티브로서의 예수 이야기, 그리고 예수 내러티브의 성품화를 위한 덕의 윤리, 나아가 두려움보다 신뢰에 의한 윤리 및 평화의 윤리 등이다. 여기에 맥킨타이어(A. MacIntyre)와 요더(J. H. Yoder)를 비롯한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up>30)</sup> 필자가 보기에, 하우어워스에게 ‘종합’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무엇보다도 빛나는 부분은 ‘교회’이다. 요컨대, ‘교회됨’ 자체가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의 핵심인 셈이다.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는 교회됨을 통한 사회윤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에 따르면, 윤리가 모든 신학적 성찰의 첫 자리에 와야 한다.<sup>31)</sup> 하지만 윤리란 복음을 말하고 그대로 사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모음에 불과하다.<sup>32)</sup> 다른 말로 하자면, 윤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통로이어야 하는 셈이다. 그에 따르면, 교회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첫째기는 사회적 과제는 교회되게 하는 것(to be the church)이다.<sup>33)</sup>

그렇다면,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교회됨’을 위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

29) S. Hauerwas & W.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 있는 사람, 2008), 125면

30) 하우어워스는 자서전적 저술에서 맥킨타이어와 요더를 “two really big brain”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S. Hauerwas, *Hannah's Child : A Theological Memoir*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10), p.146

31)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6

32) S. Hauerwas & W.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 있는 사람, 2008), 148면

33)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0

가 말하는 교회는 현실의 교회와 수학적 합동을 이루지 않는다. 그는 교회란 특정지역, 특정교파의 특정모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가령, 그의 출신지 텍사스를 포함한 남부의 교회가 교회의 전부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대목은 그의 교회인식이 ‘교회됨’을 위한 인식 혹은 당위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실의 교회 혹은 지탄받는 교회를 넘어 교회다운 교회, 마땅히 되어야 할 교회 즉 ‘교회됨’에 그의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싶다. 필자가 보기에, 하우어워스가 제시한 ‘교회’는 ‘교회됨’을 담아낸 것이요, 그것이 윤리의 목적이란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언급 몇 대목만 보아도 이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듯싶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무는 예수 이야기를 바르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sup>34)</sup>

교회는 예수 이야기대로 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받는 공동체이다.<sup>35)</sup>

이 부분에서 로빈 길(R. Gill)의 해석을 인용하자면, 하우어워스는 교회란 기독교 이야기의 담지자이며 기독교적 사회화의 대리적 공동체라고 보았다.<sup>36)</sup> 실제로,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말할 때, 교회론 혹은 교회사를 언급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윤리의 문제에 집중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란 성례전이 행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올바른 삶(upright lives)의 모습’이 있는 곳이다.<sup>37)</sup> 이 부분에 기독교 고유의

34)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13면

35) 같은 책, 189면

36) R. Gill, *Churchgoing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1999) p. 18

독특한 삶의 구현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교회는 자유주의적 사회공동체에 동화되어 그들에게 제시할 사회윤리의 이론과 틀을 소유했다기보다 교회 그 자체로 사회윤리이다. 혹은 교회는 무언가 새로운 사회윤리를 제안하기보다 그 자체로 사회윤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sup>38)</sup>

이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를 말하는 하우어워스의 관점에 기존의 사회윤리 개념과는 다른 목소리가 스며있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사회윤리는 흔히 원리와 정책의 형태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앙의 핵심적 확신과 무관하거나 혹은 기독교의 핵심관점이 보증해주지 않는 것들이기 쉽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기독교사회윤리의 기초에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인식 말이다. 이러한 뜻에서, 그는 성경의 윤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내러티브’라는 틀에 주목한다. 사회정책 혹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지닌 내러티브를 사회윤리의 기본 카테고리인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sup>39)</sup>

이처럼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데에는 사회윤리의 틀이 정책과 참여보다 예수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에 있다는 하우어워스 나름의 관점이 담겨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치를 오랜 세월 실천적으로 공유해온 공동체로서,<sup>40)</sup> 하나님 이야기라는 내러티브 의존적인 공동체이다. 또한, 교회의 ‘사회윤리’는

37)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7

38) *Ibid.*, p.99

39)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28면

40) S.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ke Univ. Press, 1988), p.102



기독교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러티브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점에서,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그는 ‘예수 이야기’(Jesus narrative), ‘하나님의 이야기’(story of God)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방식을 부여하는 이야기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sup>41)</sup> 하우어워스가 예수에게 사회윤리가 있었고 사회윤리를 위한 합의를 지니고 계셨기에 예수 이야기가 하나의 사회윤리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야말로 그 윤리의 예증이라고 보았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이스라엘과 예수 이야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삼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부터 착수함으로써, 교회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은 예수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윤리에서 교회됨의 사회윤리에로의 전환에 예수 내러티브에의 충실이 강조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회정책에서 내러티브에로의 관점전환을 넘어서는 요소가 담겨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가 지닌 사회윤리의 독특성은 교회가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라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내러티브의 종류 즉 예수 내러티브가 말하는 독특성을 추구해야 한다.<sup>42)</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예수 내러티브는 독특한 사회윤리 혹은 정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우어워스의 ‘정치’개념

41) S. Hauerwas, *Truthfulness and Tragedy*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p.73

42)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20면

이다. 특히, 모든 정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육성하는가에 의해 검증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정치신학자들이 기독교와 정치적 함의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를 사회변혁의 문제에만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 던져야 할 결정적인 정치적 질문은 교회가 과연 기독교적 확신이라는 핵심적 내러티브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체와 정치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육성했는지에 의해 이해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가장 바른 정치는 덕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이다.<sup>43)</sup>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가 ‘덕의 윤리’(ethic of virtue)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우어워스에게서, 교회는 기독교적인 덕의 터전(locus)이며 공동체이다.<sup>44)</sup>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복음적 성품의 훈련장 혹은 덕의 학교이다.<sup>45)</sup>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 하기에 충분한 덕을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는 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sup>46)</sup>

43) 같은 책, 17면

44) R. Gill, *Churchgoing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1999) p. 15

45)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68면

46)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3

이처럼, 하우어워스가 내러티브의 종류를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내러티브를 구현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 내러티브의 핵심가치들을 뽑아낼 수 있다면, 신뢰, 용서, 평화 등으로 말할 수 있겠다. 가령, 두려움보다 신뢰 위에 사회를 세워가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였다.<sup>47)</sup> 또한 용서의 가치가 강조되기도 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내러티브의 공동체이다.<sup>48)</sup>

특별히, 폭력의 시대에 평화의 가치는 하우어워스가 무척이나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에 따르면, 폭력의 문제는 기독교사회윤리의 핵심주제이며,<sup>49)</sup> 평화란 인간의 합리적 능력에 관한 거짓 설명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전쟁이라는 것은 도무지 양립할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다.<sup>50)</sup>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해야 한다.<sup>51)</sup> 무엇보다도, 교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근거하며, 그 핵심에 평화와 비폭력의 강조가 담겨있다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정치에 사회적 대안이 되어야 하며, 평화의 왕국(the peaceable kingdom)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52)</sup> 하우어워스는 아마도 사회에 진

47)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151면

48) 같은 책, 142면

49) S. Hauerwas, "The Servant Community: Christian Social Ethics" in J. Berkman and M.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p.390

50) 같은 책, 198면

51)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p.103

정한 정치적 대안으로서 용서와 화해의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주장하고 싶었던 듯싶다.

### 3. 사회윤리 아젠다로서의 ‘교회됨’

‘교회윤리’라는 별명을 가진 하우어워스의 윤리는 그 자신의 요약처럼, 몇 가지 강조점을 지닌다.<sup>53)</sup> (1)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덕성의 중요성과 그 회복의 강조, (2) 예수 내러티브(복음)를 통한 윤리의 설명 및 강조, (3) 복음에 충실한 덕성의 사람을 형성시키는 교회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4) 현실정치참여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시민사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5) 십자가 정신에 대한 강조 및 비폭력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그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강조점들은 그 자체로, 하우어워스에게 고질적으로 따라다니는 ‘퇴거’의 비판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핵심들이라 생각된다.

하우어워스가 제안한 교회됨의 사회윤리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비판은 아마도 ‘소종파적 퇴거(withdrawal)’라는 반론일 듯싶다. 하우어워스 자신도 이 비판에 무척이나 민감하고 대담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퇴거’의 비판에 대해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한다.

더 큰 반론이 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용인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세상으로부터의 퇴거해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그것이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첫째가는 사회적 책무라는 나의 확신은 변함없지만, 교회의 이러한 책무를 말한다고 해서 ‘퇴거’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법을 교회 정치에 대

52) *Ibid.*, p.102

53) S. Hauerwas, *A Cross Shattered Church :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p.145

한 관점과 더불어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윤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54)</sup>

자칫 교회가 세상 섬김을 접고 종교적 의미의 게토로 퇴거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혹은 세련되지 못한 부족중심주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부족’일 수 없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이야말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점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한다.<sup>55)</sup>

자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하우어워스는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세상과 교회는 결코 같은 것일 수 없다. 만일 이것을 ‘퇴거’라고 비판한다면,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 세상은 교회일 수 없다.<sup>56)</sup>

말하자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항변인 셈이다. 그에 따르면, 교회됨이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섬기되 그 자신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즉 교회는 교회자체의 방식에 충실해져야 한다는 뜻이다.<sup>57)</sup>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소비문화에 찌든 현대사회에서, 예수 내러티브에 주목하고 그것을 성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역사의 주(主) 모시며 순례 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생존확보를 위해 폭력에 의존하려는 세상을

54) S.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212~213면

55) 같은 책, 183면

56) 같은 책, 213면

57) 같은 책, 172면

향하여 평화의 길을 그 대안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퇴거의 가능성을 이유로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논박하기보다 기독교사회윤리의 저변확대 혹은 성숙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교회됨’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교회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젠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적실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싶다. 특히, 공공신학의 거장 스택하우스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필자의 관점으로는,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의 윤리와 스택하우스로 대변되는 공공신학은 사회윤리에 대한 강조점이 다를 뿐 배타적인 것일 수 없다. 하우어워스는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스택하우스는 교회 밖으로의 윤리를 강조했던 셈이다. 스택하우스가 교회 밖으로의 윤리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열정을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또는 하우어워스가 교회 안에서의 윤리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교회 안에서의 윤리와 교회 밖으로의 윤리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 이야기에 충실하게 성숙되어야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한 사회적 실천이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 윤리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58)</sup>

필자는 오히려 하우어워스에 대한 퇴거의 비판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 아닐까? 교회공동체 경험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교회인가? ‘너나 잘 하세요’를 내뱉는 시민사회를

58) 문시영, “교회 안에서의 윤리, 교회 밖으로의 윤리” 〈성암사상연구〉 4집, 2007, 86-88면

향하여 교회는 과연 사회정책과 그 실천전략을 주기에 합당한 윤리적 공동체일까? 교회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교회구성원들 사이의 회의적인 모습들에 실망하고 지치기 쉬운 경우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할 것인가? 아주 짧은 코멘트가 있기는 하다.

교회는 고백과 화해의 수단, 대결을 넘어 용서의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교회에 있다.<sup>59)</sup>

그러나 과연 현실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싶다. 다만, 실망을 포기하고 고착화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교회는 자연인들의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과 경배를 그 핵심에 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하우어워스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교회다움과 교회됨의 문제들을 고찰하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유념해야 할 것은, 하우어워스의 윤리를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기존의 현실정치에 대한 사회정책의 제시 및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의 제시를 비롯한 교회의 사회참여는 엄연한 '현실'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무에 중요한 또 하나의 아젠다를 얻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정황 즉 교회가 시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황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사회윤리로 제시한 하우어워스의 목소리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59) S. Hauerwas & W. Willimon, 강봉재 역, 『십계명』(복 있는 사람, 2007), 125면

필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내러티브로 형성된 존재인 동시에 예수 내러티브의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교회의 존립이야말로 우리시대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가 주목해야 할 추가적인 아젠다 혹은 이슈로서의 ‘교회됨’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하우어워스를 왜곡하는 것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한국적 시민사회에서의 교회의 자기성찰과 윤리적 성숙을 위한 지침으로 삼을 가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해야 할 듯싶다.

### III. 나오는 말

언젠가, 필자는 하우어워스와 스택하우스의 문제의식을 엮어내는 학술 발표에서,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그야말로 ‘순진한(naive) 기대라고 거세게 몰아세우는 논객을 만난 일이 있다. 불의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라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솔직히, 니버적 사회윤리 개념에 익숙한 필자로서도 하우어워스가 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논객의 관점에 자리 잡은 도식적 이해야말로 순진함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하우어워스에 대한 그의 오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는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 시민사회를 기독교 고유의 방식으로 섬기려는 통찰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윤리학의 흐름에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의식이 무척이나 정확하고 한국적 응용의 여지 또한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R. Gill. *Churchgoing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1999.
-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ke Univ. Press, 1988.
- \_\_\_\_\_. *Truthfulness and Tragedy*.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 \_\_\_\_\_. *A Cross Shattered Church :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 \_\_\_\_\_. *Hannah's Child : A Theological Memoir*.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10.
- \_\_\_\_\_. "The Servant Community: Christian Social Ethics" in J. Berkman and M.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북코리아, 2010.
- S. Hauerwas & W.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복 있는 사람, 2008.
- S. Hauerwas & W. Willimon, 강봉재 역. 『십계명』. 복 있는 사람, 2007.
-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_\_\_\_\_. 『사회윤리학』. 나남, 1993.
-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1985.
- 문시영. 『복음대로 사는 윤리』. 북코리아, 2009.
- \_\_\_\_\_.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
- \_\_\_\_\_. 「교회 안에서의 윤리, 교회 밖으로의 윤리」. 『성암사상연구』 제4집, 성암기독교사상연구소, 2007.

논문투고일 : 2010. 10. 29

심사개시일 : 2010. 11. 16

게재 확정일 : 2010. 12. 03

---

• 국 문 초 록 •

---

시민사회의 한 복판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윤리적 책무는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사회윤리에 관한 라인홀드 니버의 탁견과 스탠포드의 공공신학을 따라 말한다면, 시민사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해 사회정의의 비롯한 기독교적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윤리적 책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교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작 교회 그 자체의 윤리적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에 흐르기 쉽다.

이 논문은 하우어워스의 강조점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윤리적 과제로 상정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 및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참여 중심의 니버적 기독교현실주의와 함께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윤리적 의의를 논하였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교회됨을 기독교사회윤리의 또 하나의 아젠다로 상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고민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의 윤리에 항상 따라다니는 소중파적 퇴거의 비판과 관련하여 그의 반론을 중심으로 한국적 과제를 반추해 보았다. 소중파적이라는 비판에 타당성이 없지 않으나, 하우어워스를 비판하는 것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교회가 지닌 윤리적 과제들을 교회의 교회됨으로부터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로운 토론의 주제로 제안하였다. 특별히, 교회가 겪고 있는 한국적 갈등의 문제와 교회에서 겪는 공동체 경험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참여에 못지않게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고민이 구체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독교사회윤리의 또 다른 과제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회, 내러티브, 교회윤리, 덕의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